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9월 10일 (제91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희생 없는 열매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침탈의 억압 속에서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고, 공산세력을 밀어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처 피어나지도 못한 학도병을 비롯한 수많은 피가 이 땅을 적셨으며,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독일의 탄광으로 간호사로, 또 저 중동 열사의 나라에 젊음을 바친 분들이 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돌린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산을 뚫는 과정에 엄청난 희생도 있었다. 어느 나라든 그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땀과 피로 이룬 나라다.

계란을 깨지 않고 맛있는 오믈렛을 먹을 수 없듯이 희생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기독교가 누군가의 터득한 교리로 세워진 것이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만민에게 구원이라는 실질적인 선물이 주어진 것 아닌가.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평화통일로 가는 레일을 까는 작업이다. 레일을 까는 작업은 번거로울 수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힘에 부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레일을 까는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 평화의 기차가 달리게 된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교단이요, 우리 교회요, 바로 우리다.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

희생 없이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희생 없이 행복을 논할 수 없다. 더욱이 희생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 우리의 희생이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희생에 적극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한다. 평화통일의 기차가 우리가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달리는 것을!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목사님의 손도장이 들어간 액자를 대량 제작하여 원하는 성도들에게 배포하였다. 성도들은 가정에, 사업장에 이 슬로건 액자를 걸어놓고 각자 꿈꾸며 계획하는 바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액자를 여전히 간직하며 기도하는 가정, 사업장들이 있을 줄 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룩한 믿음의 모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속해야할 신앙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바라봄의 신앙이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꿈꾸고 상상한다. 전쟁 없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목사님의 목회 3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삶 자체가 거룩한 모험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만큼 도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눈부신 하나님의 명작을 이루어온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다. 마가다락방과 숭의 성전 입성이 그러했고, 올림픽공원 시대가 그러했으며,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가 그러하였다. 새천년 들어 전 세계를 아우른 해외선교의 대역사가 그러했으며, 서울시청광장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한 것이 그러했다. 가히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꿈꿔보지도 못했던 역사를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왔다. 성도들 각자가 가진 간증들까지 거론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이룬 기적의 역사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영광의 기록들을 갖고 있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계속 달려가겠다고 외치신다.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성취하는 믿음의 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도전과 모험의 길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로 편안함을 거부하는 삶을 작정한 목사님의 선언이고 행동이고 강력한 리더십이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란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상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같이 토하시는 이 잠언들은 목사님의 삶 자체에서 빚어진 것이기에 권세가 있고, 우리로 꿈틀거리게 하는 동력이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서울시청광장에 들어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갖는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아니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치킨게임처럼 치닫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오직 지금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세상의 권세자도, 역사의 수레바퀴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실은 매우 위중하고 한반도를 뒤덮은 전운의 그림자로 암담할지 모르나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 휴전선을 걷어내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이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어 저 김일성광장이 평화의 광장이 되는 그날을, 하나 된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선교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그날을,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이 통일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날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꿈꾸며 상상하는 그날로 반드시 인도해주신다!'는 확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이 대역사의 현장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한은택 전도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10. 2(월)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8:5~8)

인식의 변화 없이 미래는 없다

인간의 상상력은 과학이나 의학보다 앞서갑니다. 누군가 날개가 없는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연구했습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108번의 실험 끝에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누군가는 인체 이식을 상상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텐데….' 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연구했고 결국 그것을 현실화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머리도 이식하는 상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곧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상상하고 꿈꾼 자들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상상할 때야 미친놈 소리, 엉뚱하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고, 가시화 되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변화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고착된 사고, 교과서적인 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발전이나 성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이 말씀은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하고 상상하고 기도한 분들 있지요? '기도한 것이 이뤄질 것이다.'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도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싶다.', '나도 유학가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꿈꾸고 상상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상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주제에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중고차라도 감지덕지지, 무슨 저런 멋진 차?', '매일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화통일이 되겠어?' 이런 인식이 작동되면 상상의 전원은 뚝 꺼져서 아예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을 테니까 이뤄질 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깨고 상상력의 전원을 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상상력을 키워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후원자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매일 그 자리고, 매일 그 밥에 그 반찬입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원 없이 펴서 위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뭇별을 보며 자손을 상상하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야곱은 무늬 없는 양들 앞에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놓고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의 새끼가 나올 것을 상상하더니 상상한 대로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하였고,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을 상상하며 고난을 견디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상상하는데 돈 안 듭니다. 학벌, 인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돌고래 꿈을 꾸는 자들이 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가 108번 연구하고 실험했듯이,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계란을 먹지 않고 내일의 암탉을 키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만하며 침상에서 뒹군다면 그것은 정말 몽상에 그치고 맙니다. 잠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눈을 뜨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룬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초기에 '세계교구'라는 글귀를 사무실 벽에 써서 걸어놓고서 늘 세계에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상했지요. 그러나 상상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에 6개월 동안 학잠을 자며 기도했고,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창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샘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만큼 성장하고 기도하고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지요. 놀고 싶을 때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계란을 먹어버리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참고 계란을 오래 품으면, 날마다 계란을 줄줄이 낳아줄 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최대 투자는 배움입니다.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내가 상상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자는 이미 종친 삶입니다. 그의 말로는 겨울에 개미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간 베짱이 신세가 될 것이 뻔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 날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핍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대해석해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성공하는 그날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베르트 코흐는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을 발견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약을 발견하기까지 연구실에서 살았답니다. 그의 아내가 연구실에 와서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노력하고 열중했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로 인해 노벨의학상을 받고나니 과거 힘든 것이 다 보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된 산삼이나 50년 된 산삼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 먹을 수 있지만,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택한다는 사실을요! 나는 여러분이 100년 된 산삼처럼 귀한 존재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너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상상도 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요. 면류관을 쓰고 열 고을의 왕이 되어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심판하는 것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이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가만있을 수가 없겠지요.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일 놀러가는 친구가 부럽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계란보다 내일의 암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 여러분, 통념적인 사고, 닫힌 사고,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껏 상상력을 키웁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인의 머리가 되고,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되어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전도 전략

중국 근대사상 최고의 전략가인 마오쩌둥이 채택한 전술은 16자전법입니다. 마오쩌둥의 16자전법은 16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적진아퇴(敵進我退: 적이 쳐들아오면 아군은 퇴각한다), 적주아요(敵駐我擾: 적이 머무르면 아군은 교란한다), 적피아타(敵避我打: 적이 피하면 아군은 타격한다), 적퇴아추(敵退我追: 적이 후퇴하면 아군은 추격한다)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이 전법을 이용하여 장제스의 국민당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국민당군과 싸워 국공내전을 승리하고 중국대륙을 차지하였습니다.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 갔고, 현재의 중국은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전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크고 작은 일상적 성공은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인은 정적의 동향과 상태를 정확히 간파하여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표를 확보합니다. 기업인은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경쟁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경쟁우위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완성합니다. 하찮은 동물조차도 사냥감에 대한 공격 전략을 나름대로 수립하여 사냥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며 사탄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 타락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마오쩌둥의 16자전법을 전도전략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적진아퇴, 사탄의 세가 기승을 부려서 전도할 대상이 반발이 심할 때는 일단 뒤로 물러나서 전도 시점을 관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있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주아요, 사탄의 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 전도할 시점이 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적피아타, 사탄이 약화되어 전도의 대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인적 방법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퇴아추, 전도의 대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사탄의 그림자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공 성취를 위해 치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의 성공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므로 치밀한 전도 전략도 필수사항이 아닐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하나님 편에 서는 삶 ::

믿음으로 견디는 것

조금 힘들고 삶이 버거울 때, 욥기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욥은 애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목한 가정과 넉넉한 재물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은 하나님께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던 하나님께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욥을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봅니다. 욥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안쓰럽게 바라보고 계셨고,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명예가 작고 연약한 욥에게 달려있는 것 마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욥은 욥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픔이 따르기는 했지만, 욥은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고난은 욥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 좋아라 박수 칠 일은 안 할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론 처절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견뎌내어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김경현
kyunghyunjudy.kim@g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불평일까? 원망일까? 아니면 무관심일까?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임을 깨달았다. 식사대접이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대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고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가족에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게다. 이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어야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당연함을 보석 같은 특별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니엘의 삶은 일상의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바꾼 삶이었다.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에 들어가서 매일 반복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세 번씩 드렸는데(단6:10), 이 기도의 핵심은 '감사기도'였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손해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나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질화시켜야 한다. 이 감사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천사의 도움으로 사자 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낸다. 감사는 내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돕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한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했고, 마르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불평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불평은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나태하게 한다.

큰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시69:30~31)는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감사가 우리 인격에 체질화되어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바꿀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사랑& 행복 ::

때를 기다리는 지혜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배우려 많은 육아서적을 읽곤 했습니다. 책 속에서 양육에 관한 좋은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에서 제시된 아이발달의 가이드가 어느새 아이를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아이와 몸으로 부딪치며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는 절대 가이드대로 크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제각기 성향과 환경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성장하기에, 이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부모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때가 되면 기대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이 양육에 부모의 욕심이 앞서면 아이의 때를 제대로 알고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에도 모두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 분명히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급과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곤 하죠.

성경에 노아가 처음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한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의 연수가 길었다 한들 노아가 처음에 120년이나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까지 기다린 끝에 대홍수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살다보면 모두들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과일도 제철에 최고의 맛을 선사하듯, 내 삶이 가장 맛있고 값진 열매를 낼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밭의 농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후에는 자연이 자신의 역할을 해주길 잠잠히 기다리고 마침내 추수 때 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 일을 마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3:1~8).

김고은
khjc77@hanmail.net

:: From Internet ::

또 25달러네!

다음은 김동길 교수님이 실제 비행기 안에서 겪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미국 방문 중 비행기에 올라타서 내 자리를 찾아 짐을 머리 위 짐칸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날아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 갖고 오기를 잘했지! 책 읽다가 한숨 자야겠다!"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군인들 여럿이 일렬로 서서 복도를 걸어오더니 내 주위 빈자리에 모두들 앉았습니다. 군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로들 가시나?" 바로 내 근처에 앉은 군인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페타와와란 곳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2주간 특수훈련을 받은 후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날았을까. 기내 스피커에서 점심 박스를 하나에 5달러에 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동쪽 해안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기에 시간도 보낼 겸 점심 박스를 하나 사기로 맘먹었습니다.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찾는데, 근처에 앉아있던 군인 한 명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점심 박스가 5달러라니 너무 비싸다.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참고 가야겠다!" 딴 군인들도 동의하면서 점심을 안 사 먹겠다고 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군인들 중 아무도 점심 박스를 사 먹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뒤편으로 걸어가서 승무원에게 50달러짜리 돈을 건네주곤 "저기 군인들에게 모두 점심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감싸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이라크에 가서 싸웠습니다. 손님께서는 내 아들에게 점심을 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승무원 아주머니는 점심 박스를 열 개 집어 들고 군인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가서 점심 박스를 한 개씩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곤 내 자리에 오더니, "손님은 어떤 걸 드실래요? 쇠고기 아니면 닭고기?"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시나 의아해 하면서도 나는 닭고기를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1등석에서 나오는 저녁식사 쟁반을 들고 내 자리로 왔습니다. "이것으로 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가려고 비행기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를 막았습니다. "좀 전에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저도 돕고 싶으니 이것을 받으시지요!" 그 사람은 저에게 25달러를 쥐어 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기장(機長)이 좌석번호를 둘러보면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앉았는데, 기장은 바로 내 자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님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서 기장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기장은 큰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군인으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오래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을 사주셨는데, 그때 고마웠던 기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구, 이를 어쩌나' 하면서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내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날아가고 나는 다리를 좀 움직이려고 비행기 앞쪽으로 갔습니다. 앞에서 6번째 줄인가 앉아있던 승객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니, 나에게 또 25달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꺼내 비행기 문으로 걸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내 셔츠 주머니에 무언가를 쑤셔놓고 부지런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또 25달러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군인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걸어가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75달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 기지까지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이 돈으로 샌드위치나 사먹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호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군인 열 명이, 비행기에 동승했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나는 내 자동차로 다가가면서 이 군인들을 위하여 무사히 귀환하라고 빌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점심 박스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작아도 너무 작은 것입니다.

♧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상상하라.
창조적인 생각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Break your fixed mind
and imagine how to approach new things.
Creative thoughts will lead you.
要想象打破想法的框架,全新投入的方法。

:: 참된 깨달음 ::

꾸준한 전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민첩하고 빠른데 비해 거북이는 느리고 무딥니다. 누구든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자체를 놓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승리했습니다. 자기의 주력을 믿고 낮잠을 잔 토끼와는 달리 거북이는 시종일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꾸준하게 전진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노력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그 노력은 항상 어떤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평탄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결과 성공에 이른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땀 흘려 손에 쥔 트로피가 진정으로 값진 것은 최선을 다하고 목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것은 거저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패배자는 눈물을 흘리고, 불평가는 침을 뱉고, 노력가는 땀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은 비슷하지만 어떤 액체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꿈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백일몽이 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꿈도 부지런한 자, 꾸준한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힘 있게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이겨 낼 수 있다. 나는 더 노력할 수 있다.' 라고 외쳐 보십시오. 이 마음의 외침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높은 돌산이 나타나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한다면 그 돌산이 금광으로 변화할 것을 믿습니다.

:: 생활 속의 잠언 ::

경계도 좋지만

얼마 전 우연히 SNS를 통하여 한 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다.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엄청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와 처음 친해지기 시작할 무렵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후배가 해준 조언이 있었다. "선배님, 요즘 미국인들이 SNS를 통해서 사기를 치니 조심하세요." 그 후 후배의 말이 귀에 맴돌아서 경계 태세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 상황에서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그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표현했고, 이번 10월에 생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급기야 그 친구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 이초석 목사님도 사람은 시험해봐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으니까 그 친구가 나의 테스트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너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황당한 그 친구는 내가 가난한 것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급기야 그 친구는 내가 힘들면 나의 채무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고 다가오며 안타까워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끊임없는 의심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다. 결국 그 친구는 좌절과 실망으로 자신의 심장을 망가트리게 한 책임을 물어왔다. 그 친구가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판단해주실 테니 이제 부디 자기를 제발 믿어달라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멀리 사는 사람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친구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한 사람을 극한 고통에 빠트려야 하는지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했지만, 이미 깨어진 항아리에 더 이상의 물은 고여 있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주위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은 채 더욱 좋은 친구로 발전해나가면 되겠지만,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본 많은 시간이 후회가 된다.

의심은 곧 마음의 병이 되어서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기 마련이다. 진심을 다하여 다가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는 화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의심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미국인 친구와 대화의 8할은 'understand'였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쇄국정책의 그 시절 그 백성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열린 마음과 이해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우뚝 세워줄 것이라 생각한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